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전남도청 앞 '윤석열 탄핵 및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 하는 전남도의회 단식농성장을 방문,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신수정 광주시장의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대 총학생회와 교수, 교직원, 동문 등 대학 구성원들이 12일 전남대 민주마루 앞에서 12·3 내란 규탄 촛불대회를 갖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 북구 지역에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이 명기된 탄핵표결 참여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정성현 기자



서석고 등 광주 고등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12일 광주시교육청 1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김이강(왼쪽부터)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12일 광주 동구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응원봉·K-팝·현수막... 비폭력·연대 시위문화 '눈길'

주민, '국힘 108명 표결 촉구' 내걸어 대학가, 시국선언 등 퇴진운동 전개 전 세대 참여... "민주화 향한 화합" 의신들 "차세대형 민주주의"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 속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시위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당의 탄핵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응원봉을 이용해 박자와 음정을 맞춰 소위 '떼창'을 하거나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 젊은 층이 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등 비폭력과 연대의 시위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12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 학생회 임원 등 30

여명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대응 기획단'은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퇴진 결의안' 채택을 위해 총집회를 열었다.

총집회에서는 총학생회와 학생대표 등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현 시국에 대한 전남대 구성원들의 성토의 장이 펼쳐졌다.

오는 14일에는 전남대 5·18광장-정문-임동오거리-금남로-전일빌딩-옛 전남도청으로 이어지는 1980년 5월 행진을 재현하는 가두행진을 펼치며, 이후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광주시민 총궐기집회에 합류한다.

앞서 전남대 학생회는 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4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학내에는 학생들의 행동을 강조하는 대자보가 곳곳에 게시되기도 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과 함께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원동력이 됐던 시민들의 자발적인 퇴진 운동도 이어지고 있

다. 지난 11일 북구지역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이름이 명기된 탄핵표결 참여 현수막 108개가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의원 표결에 참여하라'는 내용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이들 현수막은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는 지난 3일부터 평일과 주말 오후 7시가 되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녹아든 군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촛불 대신 각자 준비해온 형형색색의 아이돌 콘서트 응원봉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또 K-팝 유명 노래를 개사해 단조로운 기존 집회에서 밝은 분위기의 이색적인 퇴진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응원봉을 포함한 일명 '민주주의 굿즈'는 품절이 속출하고 있고, '민주주의 수호 에디션'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두 자녀와 탄핵 집회에 참여한 김주형씨(54·여)는 "과거 부모님의 시위 때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최대한 폭력에 의한 희생을 피할 수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디지만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혼란한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로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세대 갈등이 아닌 화합을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의 의젓한 모습에 고맙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운동을 한 선배로 그동안 답보돼 왔던 학생회가 이번 내란사태를 계기로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며 "매일 우리가

원 30명 이상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데 함께해주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국회에서 더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에 응원봉과 K-팝 음악 등이 등장하는 현상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시민 집회에 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응원봉이 한국의 집회 현장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가벼운 시위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일본 닛케이신문은 축제의 북적임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시위였다고 소개하며 '차세대형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5개 구청장 '尹 탄핵 촉구' 1인 시위 돌입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2일 광주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각 구청 인근에서 '윤석열! 탄핵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각 구청 앞에서 매일 오전 7시30분~8시30분, 오후 6~7시 두 차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 되는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광주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

다"고 선언했다.

임택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시민들은 추위 속에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연한 의지로 시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인 시위를 마친 구청장들은 이날 오전 9시께 동구청에서 민생안정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민생안정 지원대책으로는 7% 할인율의 광주상생카드에 구(區)의 지원으로 3% 추가 할인을 더해 총 10%의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 발행'을 내세웠다. 지역화폐 발행은 오는 2025년 설 명절 전에 시행할 방침이다.

정성이 기자

전남 25개 고등학교 학생회 시국선언... "탄핵 촉구"

전남지역 고등학생들도 12·3 내란사태와 관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화순고등학교 학생회를 비롯한 전남지역 24개 고등학교 학생회 일동은 12일 오후 3시께 화순군의회에서 '우리의 대리인에게 요구한다. 부끄럽지 않은 목소리가 되기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계엄과 총구, 경제 폭락과 외교 결례, 정족수 부족과 전용기 이륙에 모든 국민은 개탄했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공통의 절망을 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위와 그에 대한 존중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멀어져 유일한 해결책은 탄핵이다"고 말했다.

다.

이어 "탄핵을 시작으로 연루된 수많은 국정 농단의 실체를 밝히며 잘못을 명명 백백히 가리는 적절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다시는 이 땅에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 인물이 우리나라의 숭고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민주주의는 가장 고단한 위기를 마주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감히 더럽혀선 안될 수십 년간 이 땅에서 뺏기고 되찾기를 반복하던 숭고한 이름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대리하기 위한 자리는 권력과 횡포, 아집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국회에게도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목

소리가 나와야 국민의 분노를 이해할 것인가"면서 "국회가 100개의 시위를 더 보고 우리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면 국민은 망설임 없이 100번의 추위를 견딜 것이다"고 성토했다.

전남 24개 고등학교 학생회 일동 관계자는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대리인을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이라는 심판대의 관용이 결코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증명해 왔다"며 "우리가 배운 교과서 속 가치들이 허울뿐인 말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학생들이 오늘을 민주주의가 의심 없이 승리한 내용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